

강진군, 청년 창업지원 '공유 주택' 11월 준공

셰어하우스 1개 동·커뮤니티센터 1개 동...373.5㎡ 2층 전원주택 등 2천세대 조성...주거지 일대일 연계 사업도

강진에 청년의 공유 주거를 지원하고 창업을 돕는 공간이 오는 11월 마련된다. 강진군은 전라병영성 인근 성남리에 '청년 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사를 최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진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1년에 2억씩, 3년 동안 총 6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유출 방지와 도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마을 만들기'의 후속 사업이다.

청년들의 공유 주거시설을 조성해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취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 공유 주거형 숙소(셰어하우스) 1개 동과 창업을 돕는 커뮤니티센터 1개 동으로 조성된다.

연면적 373.5㎡ 2층 건물로, 오는 11월 완공될 예정이다.

강진군은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마을 청년들과

공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후 기본계획·실시설계를 마치고 지난달 28일 착공했다.

이 시설은 청년들이 병영시장과 주말 행사 '불금 불파' (불타는 금요일엔 불고기 파티) 등 창업과 연계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불금 불파 축제장에 청년 창업 공간을 지원하고, 관광객들의 병영시장과 청년 점포 방문을 이끌 방침이다.

청년에게 공유 주거형 숙소를 지원하는 동시에 청년과 주거지를 일대일 연계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강진군은 전원주택 1000세대 조성과 1000세대 빈집 정비 사업을 하고 있다. 이들 사업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형태의 주거 공간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강진에서 살아보기(2-4주)', '지역탐색·취업 창업 체험'을 진행해보니 참여 청년 중 11명이 강진에 정착하기를 희망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역을 찾는 청년들이 거주할 곳을 찾기 어려워, 꿈을 펼칠 기회가 차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이번 청년마을 공유주거 사업을 기반으로 청년들이 강진군에 정착해 마음껏



강진군 전라병영성 인근 성남리에 오는 11월 준공하는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조감도. <강진군 제공>

꿈을 펼칠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지원 관련 국도비 공모사업 도전과 병영시장 내 불금불파 행사와 연계해 청년창업을 배양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강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h@

농업용 미생물 신형 '무인 안내기' 도입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용 미생물 신형 과정에 '무인 안내기'를 최근 도입했다.

농업인이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원하는 미생물을 선택하면 결제를 바로 할 수 있다. 무인 안내기를 통해 미생물 수령 희망일도 지정할 수 있다.

함평군은 고초군과 유산군, 효모, 광합성균, 악취 저감균 등 5종류의 미생물을 주 2회(수·목요일) 생산·공급하고 있다.

유용 미생물들은 토양의 작물생육을 촉진하고 병해충 발생빈도를 낮추며 특히 축산업에 이용 때 악취와 가축 질병 감소에 효과가 있다.

함평군은 다음 달 중 미생물 배양공급장치를 새로 도입할 방침이다.

문정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많은 농업인이 유용 미생물의 효능을 인지하고 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미생물 사용 편의성 증진과 품질향상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성 사과' 이을 '장성 레몬' 기대하세요

삼서면에 5ha 규모 재배단지 조성 재해 적은 스마트팜·친환경 자재

장성군이 삼서면에 5ha 규모 레몬 재배단지를 조성하며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에 힘쓰고 있다.

장성군이 조성하고 있는 레몬 재배단지는 오는 2025년 준공 예정인 삼계면 국립야생대작물실증센터 건립에 맞춰 추진되고 있다.

레몬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만 재배되고 있는 아열대 과일이다.

전국 소비량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 레몬은 방부제 등 화학 처리가 된 탓에 국내산 레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장성군은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하나로 '장성 레몬' 대규모 단지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전남도농업기술원 주관 '2023년 맞춤형 미래전략 소득작목 육성 시범 공모'에 선정되면서 삼서면에 5ha 규모 레몬 재배단지를 만들고 있다.

이 단지에는 강풍 등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耐)재해형 시범하우스와 스마트팜(점



장성군농업기술센터가 지역 농민을 대상으로 레몬 재배 교육을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단 농장) 시설, 친환경 자재 등이 도입된다.

재배단지가 조성되면 이곳을 기반으로 전문가 교육과 현장 상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성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6월부터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강소농 학습 모임 등과 협업체 레몬 전문교육을 하고 있다.

이달 4일에는 제주도 레몬 선도 농가를 초청해 재배, 시설 관리, 병해충 방제 방법을 배우기도 했다.

장성군은 내년부터는 시설 안에 에너지 절감형 난방시설을 구축하고, 레몬 활용 상품을 개발하는 등 전략품목 육성 지원 방안을 펼치기로 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화순형 24시간 어린이집' 2곳 이달 중 운영

현대힐스테이트·한양립스...공휴일 제외 시간당 1천원

취학 전 아이를 24시간 돌봐주는 '화순형 24시간 어린이집' 2곳이 이달 중으로 운영된다.

화순군은 지난달 '화순형 24시간 어린이집 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화순현대힐스테이트어린이집과 화순한양립스어린이집 2곳을 선정했다.

화순형 24시간 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족 등을 위한 24시간 양육·돌봄제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인구소멸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운영하며, 부모는 시간당 1000원을 내면 된다. 어린이집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뺀 매일 운영한다.

화순군에 주소가 있거나 화순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는 부모라면 한 달 80시간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 이용 대상은 6개월~7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이다.

화순군은 월 1만원의 임차료를 내면 아파트에서 가장 6년까지 살 수 있는 '만원 임대 아파트' 등 인구정책 3탄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올해 다문화 가족의 자국민을 전담하는 '다문화 화팀'을 전국에서 처음 만들기도 했다.

화순군은 지난 2021년 인구감소 지역으로 분류돼 지역 소멸 위기감이 커졌다. 최근에는 조직 개편을 단행해 인구청년정책과를 신설했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앞으로 아기를 출산하면 양육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고, 대학까지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전격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활력과 보육지원팀(061-379-3571~2)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담양군, 일자리통합지원센터 교육비 지원 참여자 모집

담양군이 '2023년 일자리통합지원센터 교육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11월17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자는 18-65세 이하 미취업 담양 거주자이다. 전문 교육기관의 법정 교육을 받거나 자격

취득을 원하는 담양군민이라면 지원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 대상 과정은 경비 신입 교육, 한식 조리사, 지게차 면허(3t 미만), 요양보호사로 총 4개 과정

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율적으로 교육을 듣고 자격증(수료증)을 취득한 뒤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4개 과정 총 23명 안팎을 모집하며, 오는 11월1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담양군 일자리통합지원센터(061-381-9211)에 문의하면 된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나주 혁신산단·동수 농공단지 LED 가로등 설치

나주 혁신산단과 동수 농공단지 도로에 LED(발광 다이오드) 가로등을 설치한다.

나주시는 오는 16일부터 왕곡면 장산사거리-동수동 동수교차로 총 2.3km 구간에 LED 가로등 68개를 설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새로 가로등을 설치하는 구간은 나주 혁신산단과 동수농공단지 진입 도로이다.

나주시는 전남도 '재난·안전대책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도비 1억600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총 3억 2000만원을 투입한다. LED 가로등은 원격 통제할 수 있고 밝기 효율이 높다. 연말까지는 전남도가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한 '나주IC-동산대' 지방도 822호선 가로등 설치사업을 마무리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사고 위험이 큰 어두운 도로 구간을 환하게 밝혀 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